

목포·무안 “中 관광객 잡아라” 총력전

무안~전진 전세기 취항 연 5만여명 방문 예상

홍보물 상영·숙박비 지원·의료관광객 유치 심혈

무안~중국 전진 간 전세기 취항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남권 시·군들이 이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목포시는 이번 전세기 취항을 계기로,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와 하이타오 국제여행사, 전진항

공 유한공사는 올 지난달 말일부터 내년 4월31일까지 매일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협약을 체결, 연간 5만명이 중국 관광객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호텔과 목포국제축구센터에 목포의 특별한 곳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은 물론 한국관광기네스로 선정된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에서

중국노래와 중국어 환영 메시지도 전할 방침이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마트전복·해삼·유자차 등 건강식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목포에서 1박 1식을 할 경우 관광업체에 1인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에게 1인당 1만 500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시는 이미 숙박시설에 중국어 해설사 배치를 끝내고 무안공항 내에 중

국어관 홍보물을 비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관광객 전담 여행사인 위즈, 대원, 해피투어 여행사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중국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나간다는 전략이다.

주동식 부시장은 “이번 전세기 운항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중국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해 중국 관광시장을 선점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안군 역시 최근 의료와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의료와 관광의 접목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중국 베이징 언론인 12명이 광주 및 전남권병원 등을 시찰하는 등 의료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기도 했다. 중국 의료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경영자문 전문 회사 씨유 헬스(CU Health) 측은 무안국제공항 내에 안내사무실을 마련하고 국외 환자들의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김민준기자 jun@



“논 제조 제거 우렁이 농법 활용을”

11억 들여 933ha에 입식

해남, 구입비 전액 지원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우렁이 부화장에 연분홍색 알 낳기 활짝 피었다. 해남지역 친환경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우렁이가 동면을 깨고 일제히 알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렁이 알은 온도와 습도를 맞춘 부화장에서 12~15일 정도면 부화돼 노지 양식장에서 두 달을 보낸면 10~12mm정도의 새끼 우렁이로 자라게 된다. 이 새끼우렁이는 논 제조효과를 99%까지 높이고 있는 ‘친환경 효자’다.

해남군은 이처럼 탁월한 제조효과를 보이는 새끼우렁이 농법을 적극 권장, 올해 모두 933ha에 11억3000만원을 들여 새끼우

렁이를 입식한다.

특히 친환경 논에는 새끼우렁이 구입비 전액을 지원(ha당 12만원)해 제조효과는 물론 노동력 절감, 일관제조제 대비 비옥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끼우렁이 부화시설 등 우렁이 양식장 설치 사업에 지난해 2개소(계곡농협, 황산쌀농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억 4000만원(2개소, 자담 50%)을 투입해 연간 85t의 새끼우렁이를 생산, 관내 새끼우렁이 수요량의 76%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을 적극 권장, 올해 모두 933ha에 11억3000만원을 들여 새끼우

해남, 차상위계층 어르신 무료 안과 검진

해남군보건소는 최근 한국실명예

방재단과 함께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190명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등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질환과 익상편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영세 노인에게는 무료 개안수술도 실

시할 예정이다.

무료 안검진을 받은 황산면 박재삼(73) 할머니는 “눈이 침침해도 참고 생활하느라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니 너무 기쁘다”고 고마워했다. 군 보건소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안질환 관리를 위해 매년 150여명에 대해 무료 눈 검진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신안, 도요물떼새 도감 발간

신안군은 15일 “한국야생조류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의 도요물떼새(도요류와 물떼새류) 도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감(사진)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 서울대, 자연과학대 연구진과 함께 국내에서 기록된 63종의 도요물떼새 전체에 대한 정보와 사진이 실렸다.

국내에는 이미 여러 종류 조류도감이 발간돼 야생조류를 관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도요물떼새는 계절과 연령별로 다양한 것의 형태와 색깔을 띠기 때문에 전문가조차 종구별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 도감은 국내 최초로 서식지, 번식, 행동, 암수 특징의 정보와 생동감 넘치는 현장사진을 수록,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제작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이상선기자 silee@



연극이 끝난후... 기념촬영

12일 오전 750여 명의 해남지역 어린이들이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3 찾아가는 어린이연극' 작품인 '별주부의 아름다운 선물' 공연을 보고난 뒤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화학물질 사업장 10곳 사고 예방활동 점검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고용노동지청은 15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의 근본적 업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학사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관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장명의의 산재예방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고, 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11개소를 선정, 감독관 책임진담체를 운영하는 등 산재사고에 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주 도심공원 밝아진다

시범공원 7~8개 선정

노후조명 정비 조도 개선

전주시는 공원 내 설치된 노후조명 시설 정비 및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밝은 도심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모두 227개 공원에 2500여 개의 공원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공원에서는 조명시설 노후와 조명등 간 거리가 멀어 조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청소년 탈선 및 범죄발생 우려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밝은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현 조도(밝기의 정도) 4룩스 정도를 평균 8~10룩스 이상으로, 2015년까지 단계별로 높여가도록 하고, 우선 올해 시급성을 요하는

시범공원 7~8개 정도를 우선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야외활동 및 여가생활 증가로 무엇보다 주거지 주변 공원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조도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활권 내 쾌적하고 밝은 도심공원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준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고창, 죽림에 선사마을 조성

고인돌 유적지 연계

내년까지 35억 투입

고창군은 고창읍 죽림리 고인돌 유적지에 죽림 선사마을(사진)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기반공사를 시작, 2014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2만 8000m²의 부지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한다.

죽림 선사마을은 기존 문화재정책 방향인 보수·정비에서 더 나아가 고창 고인돌유적과 전국 유일의 고인돌박물관을 연계한 사업으로,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청동기시대 생활상 등 선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을 내에는 체험음집 7개소, 망루 2개소, 망루형 창고 2개소, 체험공간 8개소 등이 들어서며 도깨비바늘, 사냥, 움집 등 11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지난해 5억7100만원을 투입, 도로 등 기반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14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전시 및 조경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말 고창 고인돌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사적정비와 세계유산 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 고인돌박물관 개관, 2011년 고인돌유적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2014년 죽림 선사마을 준공을 통해 종합적인 선사문화유적단지로 발돋움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음형기기자 cy0370@

새농촌기금 상환 1년 연장해 드려요

순창, 축산농가 경영안정 19일까지 신청

순창군이 15일 “최근 축산물가 격 하락과 곡물가격 인상에 의한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이 지금까지 지원된 새농촌육성기금은 332농가에 55억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또 지난 2년간 연체이자율 인하를 통해 20억원 이상의 체납금을 상환한 바 있다.

아울러 원금 10%와 이자, 연체이자를 상환할 경우 남은 원금에 대해 서한제(재대출)를 통

해 분할 납부하도록 해 부실채권을 정상채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새농촌육성기금의 건전운영은 물론 농가들의 상환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돈 버는 농업으로 갈사는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새농촌육성기금이 농가들의 소득사업에 적기 지원되도록 하는 등 기금의 건전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청보리밭 축제로 초대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보리밭축제가 열리는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의 청보리밭, 모두 100ha에 이르는 청보리밭에서 열리는 축제는 올해로 제 10회를 맞았으며, 12일까지 ‘청보리밭, 그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창군 제공)

단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원도심지역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민족에 대한 향토에 함양을 위해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저학년 연대표 특강’, ‘인물로 쉽게 배우는 우리역사’, ‘어린이박물관 학교’, ‘김홍도의 풍속화로 사고력을 기르자’ 등으로 박물관의 특징을 고려해

한국사와 지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와 체험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접수한다. 접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gun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박준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춘향제 등불 행렬 참가자 모집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남원 춘향제를 준비하고 있는 춘향제전위원회는 사랑 등불 행렬에 참가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행렬 참가자에게 표식을 미리 받아 참가자가 직접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희망 문구를 적어 등에 부착한 후 등을 들고 행렬에 참가하게 된다.

이 행렬은 오는 4월26일 오후 5시30

분에 광안루 잔디공장에 집결해 6시에 출발 관란루 오작교를 거쳐 제일은행사거리, 천주교 성당 앞, 심수정을 지나 개막식 무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춘향제전위와 남원시는 시민 청사 초동 달기 운동을 전개, 시내 일원인 읍면동 주요 도로 변에 2000여개 청사초동을 달아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해양구조협회 전북·충남지부 17일 창립

해양구조체제 선진화를 목표로 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충남남부지부가 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창립한다.

지부는 군산해경 청사 5층에 동지를 열고 수색구조·구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해양정책 제안 등을 펼친다.

또 인명구조, 구난전문가 양성사업

도 발한다. 초대 지부장은 이승우 군장대하고 총장이 맡았다.

행사는 김춘진 국회의원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구조협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해양구조협회는 지난 1월 23일 인천에서 창립식을 열고 전국에 16개 지부를 설립 중이다.

/군산=박준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해리·심원면에 갯벌생태지구 조성

전북 고창군 해리·심원면 일대에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가 조성된다. 전북도는 2016년까지 일대 87만 955m²에 233억원을 들여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탐방로와 주차장, 진입도로, 쉼터, 교량 등을 조성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고창갯벌은 국내 최대규모의 랍사르 습지(45.5km²)로 등록돼 있다. 인근에 있는 만돌·하전 어촌 갯벌체험마을에는 갯벌 드라이브, 정치망(자리그물) 어장 체험, 고기 잡기, 조개 캐기, 열린 체험 등 사계절 갯벌생태 체험학습장이 조성돼 매년 관광객 10만여명이 찾고 있다.

/고창=음형기기자 cy0370@